

第59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1月30日(木) 午前10時

第59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洪德燾)

(10時05分 開式)

○議事係長 洪德燾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陳英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축년을 맞아 의사당안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반동안, 우리 성북구를 대표할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이렇게 서고보니,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 12월2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이제 우리 앞에 하나씩 하나씩 큰 희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42명 모두의 결실이며, 나아가 50만 성북구민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바야흐로 이데올로기 시대는 가고 기술패권주의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장벽은 허물어진 지 오래고 이듬하여 무역전쟁 및 정보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제3의 물결이 물밀듯이 엄습하고 있고, OECD의 가입으로 인한 반대급부적인 파장효과 또한 우리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남북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힘의 논리 즉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 남북사이에 차가운 한냉전선이 조성되었다면 이제는 식량전쟁 및 정보, 문화 매체전쟁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고 급기야는 탈북사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공산주의 붕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다다르고야 말았습니다. 또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하게 부도로 쓰러지는 중소기업의 숫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으며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시장 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다변화, 다국적 기업들이 막강한 자본과 기술력,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나라 수요자들의 입맛과 체질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우리 민족의 생존양식인 쌀의 자급자족마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제자리 걸음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국제관계 역학구조 속에서도 효율적인 경영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위기를 계기로 반전시킨 예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50만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문화 창달이라는 쌍두마차를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자들의 합리적인 비전제시와 공직자들의 효율적인 경영마인드가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의 정착단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성북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초의회 의원의 의회활동과 운영은,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의원 개인의 노력만으로 그 목적이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작은 힘을 한데 모아 큰 힘으로 만드는 화합과 단결과 융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의회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며 하나의 공동체이며 모두가 똑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 정축년을 맞아 첫 임시회인 오늘도 우리 지역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상정하여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만, 아직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동네마다 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리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오셨지만 의정후반기를 맞는 시점에서 더욱 더 큰 끈기와 힘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관행이나 잘못된 선례는 주민의 편에 서서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고, 필요없는 군살은 과감히 빼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완급을 조정하며 견제와 균형의 묘미를 살리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금 의장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으로는 의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밖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하여 힘껏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성북구 주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북구의회 발전에 위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축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개회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洪德熹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칠 것입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될 것입니다.

(10時15分 閉式)